

# 전주시장 · 전주시의회, 비상 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 우범기 시장,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 하겠다”

### 시의회, “대통령의 사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 · 책임 추궁” 요구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입장문 발표

우범기 시장은 지난 밤 예기치 못한 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일단락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전주시의 핵심 가치이고 전주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이윤리 전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유관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주시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도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주시는 2,400여 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주시의회,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성명서 발표

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45년 만의 계엄 선포 사태는 국회를 넘겨져 했지만, 국민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

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고,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남관우 의장 외 의원 32명의 이름으로 성토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법 적극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주방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음식점 화재는 기름 과열 및 발화, 배기 후드 및 덕트 내부에 쌓인 기름 때, 조리기구를 켜 채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 가스 누출 및 폭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주방 화재의 경우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기름 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가스 밸브와 배관 정기적 점검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밸브 잠그기 △벽과 후드·덕트의 주기적인 청소로 통한 기름때 제거 △화기 주변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주거적인 환기 및 환기기구 정비 등이다.

또한, 화재예방 및 대처 방법(초기 소화요령)을 숙지하고 비상구와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 화재가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방 화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돕는다

### 9~13일 총 45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 접수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연말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성립될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이노비즈기

업 등에는 3.5%씩의 대출이자율 보전 해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시 대출 희망 은행 상담을 통한 대출상환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김옥기기자

## 전주 혁신동 호반3차아파트, 성금 100만원 기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위치한 호반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상훈)는 4일,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서세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혁신동 호반3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수익금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결정하여 후원하게 됐다. 혁신동 호반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이 된다. 혁신동

호반3차아파트 입주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세현 혁신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결정을 해주신 혁신동 호반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주민들의 사랑과 운영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된 성금과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과정을 거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

## 전북현대 마지막 승강전, '1994 특별노선' 대폭 증차

### 전주시, 8일 플레이오프 경기 위해 확대 운영

프로축구 승강전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와 서울이랜드FC의 승강전 플레이오프(PO) 경기가 펼쳐지는 오는 8일 전주시민과 축구팬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4 특별노선'을 증차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전북현대모터스FC 주말 홈경기 날에는 1994 특별노선이 시내버스 8대와 마을버스 1대로 운행됐으며, 시는 현재까지 예매된 좌석 수만 2만 석을 넘어서는 등 팬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경기에는 시내버스 14대와 마을버스 2대를 긴급 확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올해 1994 특별노선은 지난 3월 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16회의 주말 홈경기에서 약 1만 3000명의 팬을 수송했다. 이는 전체 관람객 25만여 명 중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1994 특별노선은 경기 당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팬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며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주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일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프로축구 승강전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된다.

실제로 올해 1994 특별노선을 이용한 한 시민은 “월드컵경기장 근처의 주차가 너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는데, 특별노선 덕분에 매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승강전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 관계자도 “올 한해 1994 특별노선은 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자, 구단과 팬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했다”면서 “경기 당일 많은 축구팬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시도 팬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1994 특별노선의 증차 운영

은 경기 당일 팬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1994 특별노선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 시에도 유사한 교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 중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교수버스터미널,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정류장을 거쳐 운행되며, 11시 30분부터 7분 간격으로 총 14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1994 특별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현금 1500원, 교통카드 1450원)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지불수단을 꼭 지참해야 한다.

/김옥기기자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축!전주매일 창간
www.ischeese.co.kr

최대20%할인·전국무료배송

# 문앞까지 신선하게

## 맛있는 유혹 치즈꾸러미

임실치즈농협은 대한민국 대표치즈인 임실치즈를 고객님의 편리한 구매를 위하여 임실치즈 꾸러미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

- 오프라인 : 전화주문 (063-640-6426)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s://www.ischeese.co.kr)
- 검색경로 :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 '임실치즈농협' 검색하여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 팝업창 click)

조합장 이장식

상임이사 이숙계  
이사 정기훈, 소병천, 김미영, 정승열, 강준호, 정상호  
사외이사 이종환, 최형재  
감사 김진관, 홍득표

문의전화 063) **640-6426**

QR코드를 찍으시면 임실치즈농협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향로 329

계좌번호 : 농협 178961-51-001093 (예금주 : 임실치즈농협)